



◊경북사지 계곡의 초입, 경북사는 보덕스님이 평양 연복사를 공중으로 날려 완주군 고달산으로 옮겼다 하여 '비래방장' 이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보이는 고달산은 8919천개의 임자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보덕스님을 형상 바라보며 수행했다는 열원으로 제자들이 고달산 건너편 모악산 기슭에 세운 대원사. 근년에는 일반종의 창종과 보덕스님의 형적을 적은 사적비와 고구려계 석탑이 남아있다.



◊북정밭으로 변해버린 고달산 중턱의 건물터에 축대가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고달산 전역에서 이런 절터가 20여개나 확인됐다.

'완주 고달산' 경주 남산 버금가는 부처님나라

경북사지 복원 움직임



◊경북사지를 출로 지키고 있는 폐가, 기동, 축대, 주춧돌 등 모든 유구가 경북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가공된 흔적이 있는 주춧돌, 중앙의 흙으로 보아 2차 정도의 기둥을 받치던 주춧돌로 추정된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고달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경북사지(慶福寺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북사는 원래 고구려의 보장왕이 도교를 숭상해 불교를 탄압하자 보덕(普德)스님이 650년 열반종 사찰인 평양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를 옮겨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보덕스님은 제자 6백명을 거느리고 백제 땅 완산주(지금의 전주)로 망명하면서 공중으로 사찰을 날려 옮겨 비래방장(飛來方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가람이 있었던 곳의 너른 터는 밭과 무덤으로 변했다. 여기저기 나뭇구멍은 주춧돌과 석축, 기와편들이 아니었다면 절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경북사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반종 해국종정은 경북사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조사를 실시, 한국불교사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폐사지라며 발굴조사와 함께 복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2월20일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했다. 문화재관리국은 2월24일 원

주춧돌들이 이 사실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폐가 옆 숲속에는 가공한 흔적이 있는 주춧돌 2기가 남쪽에 가려져 있는데 2차 정도의 기둥이 있을 법하다. 그러나 다른 뚜렷한 상부문화재는 없다.

1976년 전북대학박물관은 전북의 문화재를 조사하면서 완주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17개소의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석등대의 유구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고달산 경북사 민력40(高德山 慶福寺 萬曆四十)'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을 수습해 사찰의 이름을 확인. 기록에만 전해오던 경북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 외지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굴꾼들에 의해 훼손을 입게 됐다. 한 마을주민은 90

년대 초까지만 해도 득(부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같은 게 있었지만 누군가 와서 가져갔다는 말을 전해준다.

경북사가 자리한 고달산(일명 고대산·해발 603m)은 경주 남산에 버금가는 부처님의 나라다. 신라인들이 남산을 불국정토로 여기고 산과 바위에 온통 부처님을 새기고 탐을 새웠다면 보덕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삼국의 환난을 하루바삐 벗어나 불국정토에 태어날 열원을 이룩한 이곳에서 불법을 닦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고구려에서 제 뜻을 펴지 못한 이국 땅으로 망명한 그들에게 고달산은 극락세계가 보다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하던 곳이었다.

고려대 대각국사 의천이 경북사에 봉안돼 있던 보덕스님 진영을 참배하고 지은 시에는 원효와 의상 두 스님이 보덕스님

에게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웠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로 보아 경북사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수많은 학승이 모여 <열반경>을 배우고 공부하던 당시의 대표적인 승려교육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경북사의 교세는 반향해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세종 6년(1424)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될 때까지 교종계의 강력한 교과를 형성했다. 비록 승유여불 정책으로 교세가 다소 미약해지기는 했지만 당시 나라에서 승려의 수 및 보자와 결승을 정할 때면 해도 승려수 70명, 전지 50결의 대할이었다. 정확한 폐사연도는 알 수 없지만 1799년 편찬된 <범우고>에 경북사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 조선후기에 도법적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고달산 경북사 주변에는 20여개의 건물지가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8만 9천개의 암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대로 믿을 바는 못되지만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만 틀림없다. 더욱이 보덕스님에게는 개심(開心)·명덕(明德)·무상(無上)·적멸(寂滅)·의용(義融)·지수(智叡)·일승(一乘)·수정(水淨)·심정(心靜)·사대(四大) 등 10대제자가 있어 완주군 동지에 많은 사찰을 창건, 오늘날까지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일승, 심정, 대원 등은 멀리서나마 스승인 보덕스님이 계신 경북사를 바라보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건너편 모악산 기슭에 대원사(大院寺)를 창건했다. 이곳에는 열반종의 창종과 보덕스님의 행적을 적은 사적비와 고구려계 석탑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 폐허가 된 채 내버려진 땅. 그러나 고달산 경북사지에는 이땅에 불국정토를 세우려던 보덕스님과 그의 제자들의 열원이 깃들어 있다. 밤에 채이는 기와편, 주춧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사진=윤기석 기자



◊보덕스님 진영

경북사 창건 보덕스님은 누구 열반경 정통... 열반종 시조로 추앙 원효·의상스님에게 영향 미쳐

<삼국유사>에 따르면 보덕스님은 범법이 지법(智法)이고 고구려 용강 출신이다. 우리나라 열반종의 시조로 추앙받을 정도로 열반경에 정통했다. 양상 평양성에서 살았는데 산방 노승의 간청에 못이겨 <열반경>40권을 강의했고, 대보산 바위굴 밑에서 창건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8247송석탑을 발견, 거기에 영탑사(靈塔寺)를 세우고 머물렀다.

보덕스님은 국토의 모든 중생들이 늘 서로 화합하고 정법을 말하며 살기를 바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정법을 수호하는 일에 종사했다. 또 권력에 눈먼 지배자들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인해 현실도피의 잘못된 신앙에 빠진 고구려 백성들을 정법으로 인도하고자 지인도 서슴치 않았다. 왕이 이를 듣지 않자 650년 주석하던 평양 연복사를 날려 하룻밤 사이에 백제의 완산주 고달산으로 옮겨 경북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는 스님의 강직한 기풍과 법력을 말해준다. 망명후에도 백제의 권력자와 결탁하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하며 열반경을 가르치기에 힘썼다. 제자들도 스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무삼은 금동사(金洞寺)를, 작멸과 의용은 진구사(珍丘寺)를, 지수는 대승사(大乘寺)를, 수정은 유마사(維摩寺)를, 일승은 심장대원 등과 대원사(大院寺)를, 사대와 계육은 중대사(中臺寺)를, 개원은 개원사(開原寺)를, 명덕은 연구사(靈幽寺)를 각각 창건했다.

보덕스님은 비록 당대의 삼론종 계통 스님들처럼 '중'을 개창하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열반사상은 제자들에게 계승돼 후대(통일신라)에 열반종으로 결실을 맺었고, 원효와 의상스님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大韓佛教涅槃宗

● 寺刹登錄申請案内 ●

대한불교 열반종은 삼국시대 고구려 보덕성사에서 창종한 종단으로서 백제의 고대산 경북사(서기 650년)를 창건하고 적멸, 의용을 실속대 제자와 원효, 의상대사 등 수많은 고승을 배출하고 전국에 수백여 대가람을 창건하여 현재까지도 일찍이 사람이 남아있는 오고공공의 대표적 종단 이었습니다. 조선조시대 세종(서기 1418년) 불교탄압으로 조선불교선교양종된 이후 통합 종단인 교종은 단일종단으로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서기 1854년 불교정화에 이어서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서기 1932년에 창종되었으며 서기 1970년 이후, 교종인 열반종을 중흥 하였으나, 정통의 법맥을 면면히 이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중흥한 지 벌써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본종은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열반종의 총본산

연화산 와우정사는 재단법인이며 본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서 로고, 교육, 보살행, 자비인욕 등을 실천하는데 기여하며 인도(INDIA)의 불교단체와 미얀마(MYANMARI) 불교종단, 스리랑카(SRI LANKA) 불교종단, 태국(THAILAND) 불교종단, 대만(TAIWAN) 불교종단 등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함과 청정한 불교도로서의 귀감이 되고자 교학의 연구와 수행정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승적 사상으로 등향하여 본종의 중도로서 삼구보리 하화승생 포교전법과 정진을 함께할 승려와 사찰의 등 록을 환영합니다.

나주시아사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2년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열반종 총무원 전경

敬 祖 : 釋迦牟尼佛 中興祖 : 海峽海谷 三藏法師
 本尊佛 : 釋迦牟尼 涅槃佛 中興年 : 西紀 一九七〇年
 宗 祖 : 高句麗 普德聖師 宗 旨 : 一切衆生 悉有佛性
 創 宗 : 西紀 六二三年 所依經典 : 大般 涅槃經

● 大韓佛教涅槃宗總務院 ●

■ 宗 正 : 海峽海谷 三藏法師 ■ 院長 : 金 海 月

● 總務院 : 경기도 용인시 백곡동 223번지
 ● 電 話 : 033532-2472, 033539-0101~3
 ● 院長室 : 033539-0148, FAX : 033539-0104
 ● 郵便番號 : 449-800

● 總本山 財團法人 蓮華山 臥牛精舍 ●

● 住 所 : 경기도 용인시 백곡동 산43번지
 ● 電 話 : 033532-2472, 033539-0101~3
 ● FAX : 033539-0104 ● 郵便番號 : 449-800